

# 어머니의 역할지능 및 유아 리더십과 정서지능이 남아와 여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 누 리(가톨릭대 석사) · 문 혁 준(가톨릭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역할지능, 유아 리더십 및 정서지능, 유아 또래관계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어머니의 역할지능, 유아 리더십 및 정서지능이 유아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유아 또래관계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인천지역의 유치원 3곳을 선정하여 총 230명의 어머니와 11명의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역할지능 척도는 현미숙(2004)의 ‘부모역할지능검사’를 사용하였으며, 발달 자극, 양육, 관리 3개의 하위요인과 총 4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 리더십 척도는 초등학생용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연구(KEDI)를 김복희(2006)가 수정한 유아 리더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성취감, 주도력, 비전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사의 보고에 기초하였다. 유아 정서지능 척도는 김경희(1998)가 개발한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 정서 이용, 정서의 조절 및 충동억제, 어머니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문항으로 어머니의 보고에 기초하였다. 유아 또래관계 척도는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참조하여 최혜영(2004)이 수정해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하위요인은 긍정적 또래관계 행동과 부정적 또래관계 행동을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사의 보고에 기초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빈도와 백분율, 상관분석, t-검증과 F-검증(ANOVA),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 또래관계 행동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부정적 또래관계 행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관계 행동은 만 5세가 만 4세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관계 행동은 만 5세가 만 4세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리더십의 모든 하위영역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관계 행동이 증가하며, 유아 리더십 하위영역 중 비전이 긍정적 또래관계 행동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적 또래관계에서 남아는 어머니 역할지능 하위영역인 관리와 유아 리더십 하위영역인 주도력, 비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는 유아 리더십 하위영역인 주도력, 비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부정적 또래관계에서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성취감과 주도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낮아질수록, 주도력은 높아질수록 부정적 또래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지능 및 유아 리더십과 정서지능, 또래 관계 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교육과정의 목표설정 및 교육과정 속에서 유아의 성차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 또래관계의 향상을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교사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리더십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심화시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경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